

FTA 국회 비준 '반쪽' 시작... 외통위 野 불참속 단독상정



새누리당과 광주시, 전남·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31일 오전 순천에 소재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재경 예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의장, 서상기·김동완·양창영 예결위원, 김중대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지역현안 반영에 새누리당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中·베트남 등 5건 동의를안 상정 새정치 '별도 특위 구성' 반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외통위는 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본 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함께 상정했다.

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환경노동부가 참여한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주장하며 불참함에 따라 새누리당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위원장은 비준안 상정에 앞서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들어가 보란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단독 상정할 수 있었으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외통위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 업무를 산자부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 비준동의안의 진행 과정이나 실질적 내용 보다는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던 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사전행 발언 직후 퇴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제59조)은 법률 외의 안건은 회부된 지 2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또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여당이 14명으로 전체의 60%가 넘는 때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에서 결심한 하면 국회법에 따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단독상정을 했지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를 강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한중 FTA 비준안 단독 상정이 강행 처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당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지역현안 예산 반영 적극 건의

새누리 순천서 이정현 최고·예결위원장 대거 참석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현안 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1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각각 열고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경 예결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주영순 의원, 서상기·김동완·양창영 예결위원 등 새누리당의 예산 관련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시는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내년 산단·인프라 설계비 등 676억원 등 모두 10건에 2932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지원을 건의한 주요 사업은 광·전자 융합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비 100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의 내년 기술개발비 등 38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설계용역비 28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781억원,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설계용역비 90억원 등이다.

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설계·보상·공사비 807억원,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40억원,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30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운영 및 사업비 46억원 등도 포함했다. 광주교도소 무상 양여,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전남도도 지역예산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2000억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3000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50억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2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200억원,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80억원, 순천만 갯벌 생태복원 사업 15억원 등을 건의했다.

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100억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25억원, 담태~추포~비금 간 연도교 건설 100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123억원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시설 조성,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사업,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20개 사업 예산도 건의했다.

전북도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을 비롯해 산림유치원 조성,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1) 건설,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익산 고도 보존 육성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매가탄소밸리 조성 사업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부처와 담당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차대통령 방중, 역대 최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참여기업 128개 중 105개 중기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2~4일 중국 방문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지난 31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전 중남미 순방 때 125명보다 31명이 더 많은 156명으로 구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참여기업은 128개이며 이 중 105개(82.2%)가 중소기업이다.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내달 4일 상하이에서 박 대통령에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며, 중국 현지 기업들과 2차례에 나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도 한다.

청와대는 또 이번 방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경제성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간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방중 이상 경제성과 및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고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기대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는 예상 경제성과를 지난해 타결돼 현재 양국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양국 간 FTA는 한국의 경우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중국은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 수석은 "양국 정상이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력할 것을 회담 중에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협력의 가장 기본이 FTA인데 비준

차대통령 중국방문 일정 및 내용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방안 논의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면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 논의
시 주석과의 주회 환영만찬
-중국의 '발달중형 중세'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순경)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환영만찬 참석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텐안먼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회를 참관한 뒤 시 주석 초청 오찬에 참석
-전승절 행사 종료 후 상하이로 이동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한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임정청사 재개관식에 참석
-상하이시속 고위인사 참석 예정
동포포함 간담회 및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역대 최대규모의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한류 마케팅 전개

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양국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원만한 것으로 보여 한국도 빨리 통과돼야 한중간 협력이 기대되며, 우리로서는 얻을 게 더 많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목요일 출발기준)

기타큐슈/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399,000원(목) 499,000원(토)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자마 3일 459,000원(목) 549,000원(토)

1일차
[특전] 카마도지역 온천 개관 1개 증정, 족욕 체험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일본 8만개 신들의 고향 하치만군의 본사가 있는 우사신궁 관광 ▶ 일본 자연유형재해지 유노하나 관광 ▶ 일본 최대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벵부 지옥온천 카마도 지역 ▶ 전통 민예촌거리, 긴린코 호수 자유시간 ▶ 야마가세 고급 펜션(2인실) 투숙 및 온천욕

2일차
지옥폭포 관광 ▶ 태재부 천양궁 관광 ▶ 베이사이드 하카타 타워 ▶ 오로리공원 일본정원 관람 ▶ 후쿠오카 시내 캐슬타워 개인 자유시간 ▶ 자연사 박물관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일본 3대 아케보노 불리는 시라쿠야마 아케보노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토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칸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자마 오모도리 ▶ 미야자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자마 오송박물관, 다카부타이 ▶ 호텔(온천호텔 또는 1급호텔) 투숙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정소 아카마시군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병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토르 ▶ 일본 3대 아케보노 불리는 시라쿠야마 아케보노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포함사항 국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경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준비료, 펜션(2인실) 또는 호텔(2인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9인 여행보험료. [특전]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활보 수송
■ 공통불포함사항 상급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2억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 에어텔(기타큐슈 비즈니스호텔 1박+항공) 3일&4일 269,000원~
■ 기타큐슈/히라오다이 올레길 3일 529,000원~
■ 오이타/오쿠분고 올레길 4일 769,000원~
■ 야마구치 조요C.C 골프 3일(36H) & 4일(54H) 4일 779,000원~